

할렐루야,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가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Z세대 회의론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리더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

당신 이름이 어떤 타이틀(직함)로 시작된다면,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만약 이 말이 불쾌하게 들린다면 죄송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다. 대통령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의사들은 거대 제약회사(Big Pharma)에 굴복하며, CEO들은 소셜(미디어) 정의를 외치고, 목사들은 값비싼 신발을 신고, 양의 털을 쓴다. 과거에는 정직함을 나타내던 직함에 이제는 스포트라이트가 쬐이고, 연기가 시작되었으며, 나는 그 쇼를 즐기지 못할 것이라 느껴진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다. 우리 세대, 즉 Z세대는 "가장 회의적인 세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역사책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인들의 부상과 몰락을 지켜보며 성장했다. 수많은 스캔들을 통해, 신뢰받던 권위자들이 스쿠비 두 (Scooby-Doo) 만화처럼 가면이 벗겨지며 탐욕, 부패, 위선이 드러나는 모습을 익숙하게 보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트위터에서 참견하는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 세대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다. 2023년 갤럽(Gallup)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50%는 의회에 대해 "매우 낮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단 3%만이 뉴스와 대통령직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를 보였다. 심지어 과거 사회적



신뢰의 초석이었던 교회조차 흔들리고 있다. Springtide Research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가 교회의 신뢰도를 10점 만점에 4.9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대가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신의 직함만으로는 우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해야 하는가?

Z세대의 회의론 vs 예수님

내가 복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목격한 리더십의 실패에 깊이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셨는가? 전혀 아니다. 예수님은 사회가 외면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그의 손님 명단에는 왕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세리, 나병 환자, 죄인, 그리고 어린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트들과 어울리지 않으셨다. 대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께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한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마 9:10-13; 눅 5:12-16).

예수님은 추종자들을 조종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비 교주들은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추종자들을 고립시키며, 그들의 취약점을 이용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부자 청년이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조종하려 하지 않으셨다(마 19:16-22). 한 남자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 따르겠다고 머뭇거렸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 대가를 설명하셨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눅 9:60)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다는 사실을 솔

직히 말씀하셨고,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셨다.

예수님은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바꾸셨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추종자를 얻거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르침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분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떠나갔다(요 6:66).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셨다. 대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67절)라고 물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보다, 진리를 전하는 것에 헌신하셨다. 예수님은 칭찬을 갈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셨는가? 얼핏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자주 보아 온 자기중심적인 리더십과는 완전히 달랐다. (16면으로 계속)



'이단까지는 필요 없다, 멍청하기만 하면 돼.'

주의! 이것은 사탄의 계략임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겪었던 일을 나는 도무지 잊을 수가 없다. 이젠 사실 주님이 내가 떨쳐버리기를 바라지 않는, 일종의 영적 성장과 관련된 기억이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면 예배와 관련하여 얼마나 심각한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에 우리 가족은 진지한 기독교 전통과 관련이 없는 매력적인 모델로 불리는 것에 살짝 슬쩍 손을 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잠재적인 등록 교인들의 관심을 끌어서 교인 숫자를 늘리려면 예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전통적

인 예배 요소 중 일부를 제거하고 그것을 신선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요소로 대체했다.

슬프게도, 그들이 신선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것 대부분이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가 참석했을 때쯤에 기도는 이미 형식적이 되었고, 설교는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찬양은 현대 히트곡을 나쁘게 각색한 식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나빠진 것은 아니었다. 맛있는 커피가 세련된 부티크 커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건전한 예배 원칙이 그만 실용 원칙에 자리를 내주고 만 상태였다.

(3면으로 계속)



시론 2면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4면 지용주 목사



13면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강태광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9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Love 사랑

부르심에 순종하여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모님들을 응원하며 이자리에 초대합니다.

- 기간 : 2025년 10월 20일(월) ~ 2025년 10월 22일(수)
- 장소 : **Jama** (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
- 등록 마감 : 2025년 3월 31일 **zelle** ID : 512-571-0107 **venmo** ID : Sangmi-0416
- 등록비 : \$100(참석시 전액 환불)
- 혜택 : 항공편 이용 타주 거주자 \$100 지원
- 대상 : 45세 ~ 60세 담임 목사 아내(선착순 40명)

• 주최 오스틴 주님의교회(TX) • 문의 허양희 사모 512-590-0591 • 후원 **Jama**

주님의교회
LORD'S CHURCH OF AUSTIN

시론

사순절, 그 후의 삶에 대하여



이동진 목사 (성화장교회)

며칠 전 또 한 명의 유명가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이틀이 알려졌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소식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불편한 일이든 크게 소개되는 가운데 갑작스런 죽음의 소식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가수의 사인은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소속사에서 발견 당시 심정지상태였다고 밝혔는데, 5년 전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능의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 약은 법적으로 마약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마침 부활절을 앞두고 일부 교회들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그리고 교회력은 고난주일과 성금요일 등이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어서 '죽음'에 대한 신앙묵상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은 그야말로 슬프고 안타깝고 때론 황당함에 비해 성경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소식은 부활이라는 생명과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줄기 빛이 비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인 크리스티안 뤼크(Christian Rück)는 죽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의 부제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죽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목은 [자살의 언어]라고 했을 만큼 자살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Dr. Rück은 이 책에서 "자살이 최후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과이다. 많은 경우 정신질환의 영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빛이 없는 터널 속에서 주춤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버튼이 눌러졌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매년 80만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밝힌 통계 숫자가 사고사나 병사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때 이 죽음에 대해서 교회는 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위스는 이미 1977년에 안락사 관련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외국인까지도 클리닉을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유일의 국가이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자살 조력기관인 EXIT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한 사람이 1,125명이었던 사실은 생명조직원 교회가 죽음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은 죄이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단정짓고 그 누군가 마지막 순간 베풀어 줬던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교회에 있을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통사고, 전쟁, 병사, 자살 등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이야기만큼이나 우리 삶에 인접한 중요한 신앙이슈이다.

사순절이라는 이름 아래 40일간의 특별기간을 정한 교회는 잘 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는 이벤트나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짓는 종교적 행위나 40일 특별새벽기도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하지만 여전히 삶의 곁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새벽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가? 연례적 절기행사로 맞이하는 부활절이라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참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던져보는 질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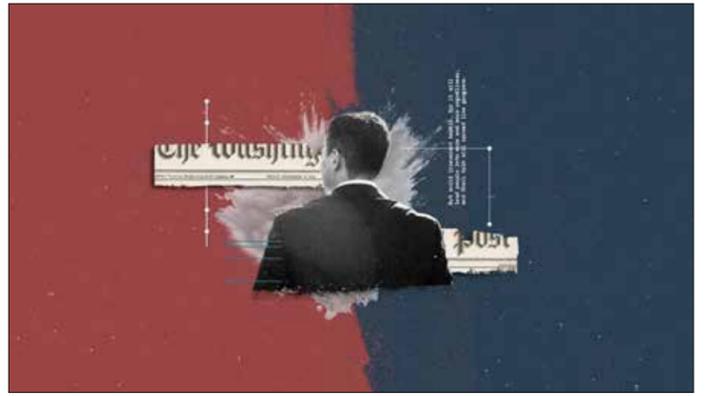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특히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절망한 어둠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만나는 감격으로 울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죽음에 더 집중하고 진지해져야 한다. 예수의 절망적인 골고다산과 비참한 십자가죽음이 이미 밝혀낸 찬란한 영광과 빛, 그 앞에 감격으로 서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

djlee7777@gmail.com

목사는 정치 평론가가 아니다

정치 평론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다

23년 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는 존 파이퍼가 쓴 나의 목회자 형제들에게(We Are Not Professionals)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내 속의 모든 것이 목사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속인 수, 오락,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필사적인 시도에 기초한 목회 모델을 피하라는, 파이퍼의 절절한 호소에 공감했다. 지금 20년 전 나처럼, 열심과 간절함은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식함을 모르는 상태에서 온갖 것에 무지한 그런 청년들이 지금 있다면, 이제는 중년이 된 목사로서 그들에게 간청한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학자도 아니다."



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목사가 Daily Wire나 New York Times에서 만나는 기사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평론이나 율조리는 모습으로 전략해야 할 이유가 없다.

목사의 권위를 희석시키지 마라

목사는 모든 것에 대해 논평하도록 부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형제들이여,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말할 권리와 또 전문성도 없는 주제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을 드러내기 전에 자문하라. 목사로서 받은 훈련 또는 목회 관련 분야에서 힘들게 얻은 전문성에 비추어서, 지금 내 속에서 근절거리인 이 내용을 말하는 게 맞을까? 물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다. 모든 창조물에서 단 한 평도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땅이다!" 외치지 않는 건 없다. 하지만 동역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해서 당신과 내가 다 말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나보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동역자들과 지인들이 태양 아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견해를 제시하고 또 사람들을 점점 더 불경건하게 만드는 "불경스러운 수다"(딤후 2:16)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소셜 미디어 주도권 싸움에 빠져드는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리석고 무지한 논쟁을 피해야 한다(딤후 2:23).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라"(딤후 2:24)는 단순한 시대정신에 따르는 게 아니다. 성

경의 명령이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에게는 정치에 대해 특별히 독특하거나 통찰력 있는 말을 할 만한 게 거의 없다. 고작해야 "예언적으로 말한다" 하거나, 그리스도의 주권을 모든 삶에 적용하자는 식이다. 이런 사실상 영성만 비판과 하나마나한 소리에 불과하다. 뉴스에 대해서 뭔가 말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일단 속도를 늦추고, 로고오프하고, 폭넓게 읽고, 고전 읽기에 빠져들라. 최소한 몇 달에서 몇 년 동안은 성찰에 몰두하라. 그러고 나면, 뭔가 말할 게 생길 것이다. 이미 떠돌고 있는 수백 명의 목소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무언가가 말이다.

(공직 및 사적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외에) 어떤 정치적 문제에 대한 목사들의 즉각적인 의견 표명은 별 가치가 없다. 내가 나태, 트랜스젠더, 인종 또는 동성애와 같은 주제를 다룬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들이 "정치적" 주제라고 불린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최신 뉴스에 지나치게 빨리 뛰어들거나 개별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너무 자유롭게 표현했던 것은 후회한다.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일단 자신을 "항상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사람"이라고 설정하고 나면, 사람들이 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논평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끊임없이 정치적 논평과 디지털 논쟁을 한다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에게서 같은 것을 더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 어떤 일에 대해서 3개월 후에 하는 논평이 너무 늦는 게 된다면,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New York · New Jersey
선교사의 집
후원: 917-599-3620
40-22-158st Flushing, NY 11358
Sunnysun@yahoo.com

담임 목사 청빙 공고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Wheeling)에 위치한 갈보리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 (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미국에서 3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5. 미국 내 목회 활동에 신분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1.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2.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3.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4.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 부
5.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 부
6.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추천서 3통
7.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web link)
8. 설교원고 (PPT포함) 2편
서류 제출처 및 마감일
1. 제출 마감일: 2025년 4월 30일까지
2. 모든 서류는 (이메일주소)에서 e-mail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우편으로 우송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704 McHenry Road, Wheeling, IL 60090 | 847-459-3080 | icalvarykpci@gmail.com

인랜드 교회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주 LA 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실 제 6대 담임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1.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졸업한 분으로,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한인 서남노회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국에서 5년 이상 Full-Time으로 목회 하신 분 (담임목회 경력 3년 이상 선호)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 사용이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에서 소정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이력서 (가족사진 optional)
2. 자기소개서: 한국어 또는 영어 (성경배경, 신앙관, 목회비전, 가족소개)
3.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4. 설교 동영상 3편: 한국어 2편, 영어 1편 (동영상/웹사이트 주소)
5. 목회 세부 계획서
6. 추천서 3부: 추천인이 직접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 (목회자 2명, 성도 1명)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바라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
-우편: Inland Church (Attn: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제출방법
1.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모든 문의 사항은 이메일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마감일: 04.30.2025
교회명: 인랜드교회 (INLAND CHURCH)
교회/노회: 미국장로교회 PCA 서남노회
주소: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이단까지는 필요 없다...

(1면에서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설교가 끝나고 여전히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다고 고백한 한 남자를 위한 세례식이 이어졌다. 그리고 찬양팀이 멜로디도 연주도 형편없는 80년대 팝송을 각색한 찬양을 시작했다. 그 곡은 원래 파티와 술 취함에 대한 노래였지만, 가사가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쯤 나는 간접적인 당혹감에 움츠러들었다. 내가 죽어라 억눌러야 했던 건 확신하건데 정당한 분노였다. 나는 같이 간 식구들에게 속삭였다. "진짜 멍청하다.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그날 예배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방법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게 다 멍청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날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상기하곤 했다. 그건 교회에 해를 끼치지 위해서 사탄이 굳이 예배를 이단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진리를 저주받은 오류로 대체할 필요까지 없다. 그냥 예배를 멍청하게만 만들면 된다. 진부하고 쓸모없는 예배로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배를 진지하지 않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힘이 약해지고 권능이 쇠퇴하며 성령의 임재를 잃을 것이다.

사탄이 교회에 해를 끼치고자 할 때, 그는 이단자를 설교단에 세우거나 교인 중에 이리가 들어오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은 교인들로 하여금

구식으로 보이는 예배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으로써 다른 무엇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다. 목사들이 긴 기도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긴 성경분문을 다 읽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의 요점을 본문의 요점과 연결하는 것이 혹시 설교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를 궁금해 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탄은 교회가 신선하고 매력적이 되어야 지역 사회를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특히 찬양에서 그 래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에 따라 서서히 교회를 바꾸어갈 것이다. 예배를 천천히 바꾸어 거룩한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신성한 것에서 불경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것에서 멍청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또 다른 교회가 있다. 이모와 삼촌은 규제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장로교회에 다녔다. 교회는 예배에서 신약성경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요소만을 허락했다. 그 점은 찬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들은 오로지 시편만 불렀고 반주는 없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온 이모에게 물었다. "이모, 왜 찬양을 같이 안 불렀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구약을 봐라. 하나님은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다." 그 장로교회 교인들의 모든 신념과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엄격한 해석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존경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런 저런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진지성에 관해서만은 의심할 수 없다. 그들이 받은 예배 지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다. 개인과 교회가 몰아야 할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예배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다고 믿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셨다고 믿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고 믿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 생각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에 기뻐하신다고 판단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어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매력적인 예배 모델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보편적이었던 답이자 또한 어느 시대나나 통용되었던 답은 이것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의 지시를 당혹감이나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안 되며 주저하거나 불순종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겸손과 경외심, 예배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상의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방법을 일러주시는 그분을 향한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배 방법을 스스로 창조해 내는 대신에 단순히 그 명령 받은 대로 하라는 것이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대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를 경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분이 가장 잘 아신다.

by Tim Challies, TGC

목회단상

청년이 평평운 시연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예배 중에 한 청년이 평평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뭘까 그리 힘들어 울었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릴 적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선교사님의 운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려인으로 러시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 선교사님은 항상 커다란 SUV차량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분은 고려인이었고, 선교사님의 말씀과 대화를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선교사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나는 그때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커다란 차에, 기사까지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선물을 주곤 하셨기 때문에 참 대단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는 어렵고, 큰 차를 살만한 능력을 갖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선교사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 말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행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사업이 잘되었습니다. 과거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셨던 차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진 차주도 되고, 사업주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고려인 청년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아니 넘치게 받은 것입니다. 자랑스러웠고, 스스로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행사는 문을 닫았고 순식간에 차도 사업도 날아갔습니다. 살던 집도 나와야 할 상황까지 몰렸습니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고,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도로 빼앗아 가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뭘 어찌해야 하는지 앞이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보내니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멍해지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은혜냐?'라고 되물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흐르고, 주신이도 여호와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팬데믹은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닌데 이런 시련 앞에 주시기를 원망하면서 내가 받은 것이 모두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관념적으로나 언어적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값없이 받은 것들인데 항상 조건이 붙고, 이유가 따라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은혜를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리는 것이 은혜고, 기대 이상일 때 은혜고, 인정받고 좋아지면 은혜라 말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비난받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험'이고, '고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시험도 은혜아래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제각각 생각하고, 느끼는 상황보다 먼저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족하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을 더 주셔야 할지 이미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제 더 큰 은혜를 누릴 한 차원 높은 성숙을 맞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고후 12:9-10)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가진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나타나는 남다른 능력들은 은혜중의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 자랑할 만한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남들이 상상치 못할 능력과 필박과 심지어 몸에 있는 가시조차 은혜라고 기뻐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은혜 아래 계시나요? word4u@gmail.com

목사는 정치 평론가가 아니다

(2면에서 계속)

그건 우리가 가진 제한된 시간과 관심을 받을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구(舊) 프린스턴의 신학자 J. A.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써도 종교적 진리의 위대한 주제를 다루는 데에는 모자란다. 정치에 그 자체로 하나의 과학이다. 따라서 설교자가 그 분야에서 뛰어나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써야 할 시간 중 일부를 희생해야만 한다"(Thoughts on Preaching, 30)

더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목사들의 경우에, 그제 그들의 통찰력과 신중함에 플러스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백인들의 인종차별이나 이웃 사랑의 시급성으로서의 코로나 프로토콜에 대해 "용감하게" 말한 좌파 목사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 너무나 교조적이고 복음에 끼워 맞추어 말했다. 친구들과 인터넷의 일부 계층에서 환호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목사로서의 권위를 낭비했다. 그 결과 더 이상 사상이

이자 기독교 지도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되었다. 내 오른쪽에 있는 과격한 친구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들 역시 우파가 바라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용감하게 따라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훈련받은 일을 하라

다양한 관심사를 갖는 게 목사에게 문제될 건 전혀 없다. 나도 삶과 책,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때로는 시사와 정치도 포함한다). 하지만 내가 가장 열정을 쏟는 것은 신학과 교회 역사에 대해 가르치고, 주일마다 말씀을 설교하는 지역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장 열정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 걸로 분명히 드러나길 바란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팟캐스트 사역, 집회 사역, 정치 행동 사역, 보수적 싱크탱크 사역이라면, 나는 지금 당장 교회를 사임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은 중요한 직업이 많고 주님과 그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목사라면 목사가 되

어야 한다. 훈련받은 대로 하라.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인도하라.

그렇다, 우리는 사랑에도 질서를 잡을 수 있다. 결코 모 아니면 도가 아니다. 얼마든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옳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사가 자신의 소명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널리 알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그 일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더라도 말이다." 우리의 공적 사역을 생각하자. 우리는 목사이다. 공공장소에서 돌리는 우리의 목소리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를 고려할 때, 목사에게 정치 평론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는 결국 정치 논쟁을 "예언적으로" 하는 목사로 알려지거나 또는 신중한 본문 주해와 성경적 풍부함 그리고 신학적으로 깊고,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 사역자로 알려질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평론가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될 수는 없다.

by Kevin DeYoung, TGC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a large header '서부(CA)교회안내' and a grid of church information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details.

목양일기



김상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양교회)

회복, 사명을 향한 첫걸음!

회복이 은혜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의미는 반석이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이다. 최측근 3인방(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한 사람이 다. 그 중에서도 Number one

즉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평소 베드로는 자신감 넘치는 말을 자주 내뱉는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35).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과 함께하겠다는 말이다. 아주 강한 결심과 의지가 빛난다. 그러나 베신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는 결정적 순간에 넘어진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이다. 철저하고도 완전한 실패이다. 예수님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은 꼴이다. 이런 베신은 인간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세상에 실패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자기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누구든지 실패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지금 베드로에게 베신의 쓰라린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 처절한 실패의 아픔과 상처가 그의 발목을 잡는다. 베드로는 마땅히 이름값을 해야 한다. 계속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장차 반석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 출발이 필요하다.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신다. 회복을 위한 방문이다. 그래서 회복이 은혜이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다. 누구에게나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곤란하다. 예수님이 포기하시거

나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회복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 주도권은 늘 예수님께 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누워있는 나를 주목하신다. 내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분명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진실하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잘 아신다. 그를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사명이 사랑입니다!

회복은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다. 목표는 사명이다. 예수님의 눈은 회복을 넘어 사명을 향한다. 사명의 기초는 사랑이다. 회복이 먼저고 사명은 그 다음이다. 회복이 주님의 은혜인 건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회복으로 만족할 순 없다.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 회복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실패할 수 있다. 그

실패의 배후에 약한 마귀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럴 때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즉 목양이다. 이 양의 소유주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사명의 본질이 그렇다. 사명의 주인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명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일이다. 내가 하고 싶어 선택하는 것은 사명이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라고 맡기시는 게 사명이다. 오늘 예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도 사랑이다. 헌신으로 표현된 사랑이다. 사명 감당으로 드러난 사랑이다. 사랑이 전부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좋겠다.

푸/른/초/장

지용주 목사

(시라큐스한인교회)



다. 집회 참가자 중에 알콜과 마약, 그리고 포포노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은혜를 받아 성정체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간증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에즈베리 부흥집회에서도 그 남아 있던 18명의 기도의 불씨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난 것이라 생각이 든다.

부흥이란 히브리어로 '카야'(Kayah), 영어로는 'revive'로 사용된다. 죽어 있는 영적 생명에 힘을 주고, 생기가 돌아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상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무력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점점 타락해 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정외의 사라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린 사회를 바라볼 때,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캠퍼스의 학생들은 신앙의 다음세대이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향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는 간곡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외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강력히 외쳤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1절)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가 났다 (사 3:8-9). 마찬가지로 우리도 범 죄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찢기고 상처가 나며 삶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삶은 황폐하였으며 메말라 있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했다 (3절).

우리는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부흥의 소식을 들었고,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곳 시라큐스 인근 지역의 캠퍼스 부흥을 위해 Worship Night을 준비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카야 기도팀과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와 함께 오는 3월 28일 캠퍼스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작은 시작을 통해 우리 지역과 뉴욕지역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속한 가정, 교회가, 직장과 학교, 그 지역사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무릎 꿇는 겨자씨가 한 아내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workman4yeshua@gmail.com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캠퍼스 부흥을 꿈꾸며 -

호세아 6:1-3

HOSTED BY MUSTARD SEED FELLOWSHIP & THE NJ/NY KAYAH PRAYER TEAM

WORSHIP NIGHT

Kayah

origin: hebrew to revive

"COME, RETURN TO THE LORD" Hosea 6:1

MARCH 28, 2025 | 7PM

SYRACUSE UNIVERSITY HENDRICKS CHAPEL

FOR MORE INFO: (315) 474-8346 or info@kcsyr.org

뉴욕 업스테이트에 오면 감리교 재단에서 세운 시라큐스 대학을 만나게 된다. 이 대학은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위치한 캠퍼스 쿼드의 정 중앙에 이 대학의 상징인 핸드릭스 채플이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이 채플은 미국의 영적 각성과 연결된 기도모임과 관련된 역사적인 건물이다.

핸드릭스 채플 설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프랜시스 핸드릭스(Francis Hendricks)는 위그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보통교육 밖에 받지 못했으며,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창이던 때 11년간 사진 도매업을 배운 후 시라큐스로 돌아와 성공하게 되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라큐스의 대학에 아름다운 채플을 세우고 싶어졌다. 핸드릭스는 그의 유언장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기념하여 채플을 짓도록 지시하였고, 그가 세상을 떠난지 9년 만에 건축이 시작되어 1930년 드디어 그의 이름을 딴 핸드릭스 채플이 완공되었다.

미국 내 다른 사립 대학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나 시라큐스 대학 역시 풍부한 신앙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던 시라큐스 대학은 현재 미국 내 다른 많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세속화되었고, 핸드릭스 채플 역시 그 설립자인 핸드릭스의 소원과 달리 각종 종교 동아리들이 들어와 각자 자신의 신을 섬기는 만신전과 같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핸드릭스 채플 안 예배당의 전장에는 아직도 다 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 4:24)” 그리고 이 예배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바쳐졌다 (Dedication to the Worship of Almighty God)” 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이 대학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대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중요성에 대해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책 목사는 스스로 설교를 잘했다고 느끼지 않았고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집으로 갔지만, 성령님께서 그 메시지를 사용하셨다. 사랑에 목마른 Z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책 목사의 메시지에 도전 받았다. 채플에 참석한 약 8백명 중 18명의 학생이 진한 감동 가운데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에즈베리 부흥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Z세대였다. 이 세대는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 기성 세대에 가장 반항적이며 가장 환멸을 느끼는 세대라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세대가 Z세대이다. Z세대 학생들의 나이는 17-25세로 에즈베리 부흥 운동은 이러한 Z세대(17-25)의 학생들이 시작하고, 학생들이 함께 모이고, 학생들이 서로 알리고, 학생들이 24시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널리 알려졌고, 이곳 저곳에서 지역 주민들까지 모이기 시작했다. 주민 인구가 6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에 멀리에서까지 찾아오는 수만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었고, 이 모든

사한 일이었고,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Z세대들의 주도로 찬양, 회개, 성경봉독과 말씀, 기도 그리고 개개인의 간증으로 이루어졌다. 이 집회를 통해 Joy(기쁨), Humility(겸손), Unity(일치와 연합)가 있었고 많은 치유가 있었다고 한

져 있는 영적인 생명이 활기를 되찾고 소생하는 일을 부흥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정의한다.

최근에 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열정의 회복, 뜨거움'이다. 뜨겁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회마다 신앙의 감각들이 둔해져 버린 것을 다시 깨우고 살리는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사람은 언제라도 무디어지고 딱딱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깨트리는데 과정이 없다면, 새롭고 온전한 회복과 축복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은혜의 감각, 영혼의 감각

은혜의 감각, 영혼의 감각을 살려내어야 한다. 감각만 살아나면 나머지는 시간문제다. 중환자실의 환자도 손가락 발가락 어느 한쪽을 까딱거리기만 해도 병실에서는 난리가 난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감각이 돌아오면, 이제 소망을 품게 된다. 입에 불인 호흡기도 떼어 내게 될 것이고, 팔에 쫓힌 링거병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일어나 말도 하

울 수도 있다. 24시간 전화기가 없으면 그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편리함에 경도되어 버린 것이다.

편리함과 영혼의 가치

편리함은 좋은 것이다. 불편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힘들게 만드는가?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다. 외형적인 삶은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그 영혼의 상태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심각하게 죽어 가는 상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감각상실의 증상에 빠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은혜의 감각을 상실하고 서서히 마비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주의 종들이 외쳐도, 마치 돌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웬만해서는 미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익숙해져가는 삶의 편리함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영혼

이것이다. 더 나아가, 세상에 교회가 왜 많은 줄 아는가? 자유롭게 자기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성도 없는 교회 보았는가? 성도라는 소비자의 입장과 형편에 맞추어야 하지 않는가? 자신의 마음이 동하여 교회 쪽으로 오고 싶을 때까지는, 귀찮게 하지말라는 귀차니즘(?)의 세계를 주장한다. 심각한 징후가 찾아온 것이다.

무기력, 영적 우울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스한 물에 잠겨지는 개구리처럼 감각을 서서히 잃어버린다. 뜨거움을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그가 택한 자녀라고 할 때, 심각한 영적 우울감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본다.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주의 자녀가 마땅히 생각하고 행할 것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성령

사랑하는 이를 본 적이 있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게 그것은 엄청난 불행의 전조가 될 것이다. 죽을병이 들기 전까지는 그 감각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도적질을 하면 화인맞은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더 심장이 빨리 뛰고, 피가 빨리 돌고, 폐로 호흡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야 한다. 아주 좋은 증상이 다. 왜 좋은 것인가? 영혼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를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애매한 말을 하고, 없는 일을 말함에도 표정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영혼에 죽을 병이 든 것과 같은 일이다.

영적 은혜의 스파크

그러면, 이미 감각이 둔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흔들려 깨우면 된다. 마치 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뜨겁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영적 무감각, 편리함, 흔들려 깨움-

고 스스로 입을 열어 밥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퇴원 후 할 일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을 품은 생각들을 챙기면서, 일상의 삶을 위해 나아가갈 것이다. 이를 가리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회복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회복의 시작은 가장 먼저 감각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감각이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정상이고 삶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보상자, 착각과 오해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감각 없이 분주하고 복잡함을 본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속에 묻히고 떠밀려 살아간다. '당신, 이리다가 죽는다.' 그렇게 소리쳐도 못 들은 채 한다. 온몸이 마비되어도 그저 머릿속의 생각과 입만 달싹거리며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손가락을 까딱하면서 전자기기의 페이지만 넘길 수 있으며, 세상을 다 아는 것 처럼 살아간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몸의 새로운 인공장기(Artificial Organs)라고 할 정도의 기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 현실이다.

몸에 떼어 놓을 수 없으니, 이제는 예배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의 상태와 영적인 감각들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다. 진짜 이상해졌다.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 분이 아닌에도, 이상해졌다. 공중을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붕 떠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이상함을 본인은 감각하지 못한다. 주의 자녀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아무런 이상 증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이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어느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하는 삶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다.

기초와 기본의 상실

예를 들어, 믿는 사람이 교회를 그리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몸을 움직여 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간 주일을 빼 먹고 어디 여행을 다녀와도, 심일조 정도는 살만할 때 하는 것인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전혀 마음에 1도 거리낌이 없다면 정말 이상한 양심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심지어 이런 가장 초보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율법주의라고 많이 듣고 보고 배운 언어로 규정해 버린다. 자신이 원하고 동의가 되면 모두가 은혜이고, 자신이 하기 싫거나 부담되는 것은 모두가 율법주의 같은 고상(?)한 이념들을 불

게서 그에게 구원의 특별은혜가 아닌, 일반 은혜들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매사에 부정적이 되는 것을 본다. 영혼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본다. 마침내, 주님앞에 회개할 말과 일들만 잔뜩 쌓아두는 것을 본다.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기쁨이 없는 얼굴이 된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 방종의 기쁨은, 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하고 존귀한 하늘의 은혜의 맛을 이미 알았는데, 그 감동들이 그 영혼 한켠에 오롯이 남아있는데, 이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 맛을 다시 맛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뎌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은혜의 감각을 회복

그래서 성도가 은혜의 감각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성도가 실수로 음주 방종을 하면 더 빨리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음의 복된 증거가 된다. 알콜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서 쓰러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중직이면서도, 나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얼굴에 표시하나 없고 멀쩡하다고

장이 멎었으면 전기 충격을 실형하여 스파크를 내듯이 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난다. 은혜를 감각하기 시작하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나면 사명 위해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엄청난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가장 최소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이를 기점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의 자리를 수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액을 들어야 한다. 은혜가 되던, 아니되던 계속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마음의 상함과 고통이 있어도, 교회로 몸을 가지고 와야 한다. 넘어져도 교회쪽으로 넘어져야 한다. 잠이 오지 않으면, 밤새 뒤척일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하는 교회와서 자야 한다.

그렇게 잠든 자신의 영혼을, 감각없는 영혼을 흔들려 깨워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무감각함이 많아질 때, 성회를 여는 것이 좋다.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회로 모였듯이, 성회를 통해 영적 스파크가 심령가운데 떨어지면서, 잠든 영혼을 흔들려 깨워야 한다.

그러나 너무 감동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함도 필요하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5년 전에 목사안수를 받고 부목사를 거쳐 작년부터 약 4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목회하는 40대 초반 목사입니다. 설교사역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이 교회의 당회원 3장로님과의 관계입니다. 당회를 하다 보면 작은 문제로 의견이 갈리기가 쉽고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화평이 깨지기 쉬운데 어떻게 당회에서 장로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 오렌지 카운티에서 K 목사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지 말라

A: 여기에 2가지로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균형감각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자전거 타기는 Balance 즉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당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균형이 잘 잡힌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균형, 전통과 개혁의 균형, 은혜와 진리, 법과 사랑의 균형입니다. 교회의 담임목사나 당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잡힌 시각(Balanced Perspective)으로 교회와 어떤 안건을 보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로컬을 보면서도 글로벌을 보고 글로벌을 보면서도 로컬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의 화평을 깨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화평의 분위기를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동이 사라진 것은 노아 홍수 때에 윗물과 아랫물이 다 쏟아지면서 아열대 기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찾아와 아열대 기후가 깨어졌습니다. 교회는 늘 아열대 기후처럼 화평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화평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당회원 끼리의 화목과 화평입니다.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와서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화평이 깨어지면 새교인들이 와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화평한 교회의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이단적인 교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당회에서 의견 차이로 다투거나 의견 차이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 경험이 부족할 때는 자기 주장만 옳아 보여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 쉬운데 그것은 당회에서는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남녀가 해야 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이 죽었는데 매장해야 되느냐? 화장해야 되느냐? 침례나 뿌리는 세례냐? 예배 시에 복음 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생명을 걸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adiaphora, matter of indifference)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다투면 관계가 악화되고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양보하고 힘든 문제라면 시간을 연기하면서 "그 문제는 좀 더 기도해 보고 다음에 다룹시다."라고 잘 받아넘겨야 합니다. 사람 다루는 것이 교회 정치인데 사람을 잘 다루어야 목회에 승리합니다. 내 주장만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목회에 타격을 받는 시행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여기에 대해 교훈합니다. "믿음이 약한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롬 14:1-2)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은혜와 감동은 다르다. 근거없는 감동이 은혜이다. 근거없는 감동에 자꾸 눈물 흘리다 보면, 마치 홍수 날에 마실 물이 없는데 같이 더욱 갈증만 더할 뿐이다.

교회와 예배

교회와 예배,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감각 없는 삶을 회

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교회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고 회복을 간구하고 소망함이 영적 회복의 지름길이다.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 보라. 주님이 받아 주실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이경원 사모 (하와이 행복교회)

사순절, 부활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이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서운함에 관계가 멀어지고,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이 남을 때가 있다.

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부활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8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걸옷까지도 주어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그렇다면 부활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사랑'이다.

는 이유 중 하나가 '말과 삶이 다를 때' 라고 한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는 것이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해 보면 어떨까?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 보자.

hichristian9@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反테슬라 시위 · 주가폭락... 머스크 "힘드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실세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인으로서 직면한 고충을 토로했다.



머스크는 10일(현지시간) 포크비즈니스 진행자 래리 커들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테슬라 반대 시위(사진)와 기업 주가 하락 관련 질문에 웃으며 수긍한 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머스크는 "DOGE 업무 탓에 다른 일(테슬라 경영)을 포기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인터뷰를 앞두고는 머스크가 경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머스크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기반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율 50%로 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을 기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루스소셜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나는 상무장관에게 세계 최고를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를 추가한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12일부터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대해 오랫동안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여겨지는 250~390%의 '반미 농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세율을 즉각 내려야 한다)"며 "난 곧 위협지역 내 전력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안보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만 의존한다. 우리는 캐나다에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주는데, 이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다."

"최근 시장 불안은 일시적 변동" ... 부랴부랴 진화 나선 美 백악관

백악관은 10일 미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자 성명과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업계 리더들은 관세, 규제 완화, 에너지산업 활성화 등 미국 우선 정책에 호응해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했다. 이는 매우 큰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역사적인 수준의 일자리·임금·투자 성장을 이뤄냈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를 다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동물적인 감각과 업계 및 업계 리더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것 사이에는 강한 차이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있어 후자가 훨씬 전자에 비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CNBC방송에 나와 "앞으로 경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볼 이유가 많다"며 최근 시장 불안을 '일시적 변동'으로 평가했다.

트럼프는 전날 포크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침체 예상을 부인하지 않은 채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증시가 폭락한 10일 트럼프는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로키'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주중에는 거의 매일 취재진 앞에 섰지만 이날 예고된 대통령 공식 일정에는 취재진의 입회까지 허용되지 않았다.

美영주권 가진 팔레스타인 학생 체포... "반이스라엘 유학생들 추방 시작"

미국 이민당국이 컬럼비아대학교의 반이스라엘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팔레스타인 출

신 대학원생을 체포하고 학생 비자와 영주권까지 박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추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무드 칼릴이란 이름의 이 학생은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맨해튼 캠퍼스 부근에 있는 대학 소유 기숙사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칼릴의 체포에 대해 "많은 사람들 중 첫 번째 체포"라며 "우리는 콜롬비아대와 전국의 다른 대학들에서 친테러, 반유대주의, 반미 활동을 한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0세의 칼릴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2022년 12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2024년 12월에 컬럼비아대 국제공공문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필리핀 정부가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현재 구금 상태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경찰이 홍콩 방문 뒤 귀국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임기(2016~2022년) 동안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진 대규모 살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필리핀은 ICC가 2018년 마약과의 전쟁 예비 조사에 착수하자 ICC를 탈퇴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후임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ICC 조사를 거부한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美국무 "USAID 해외 원조 프로그램 80% 이상 폐기 완료"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인 USAID(미국국제개발청)의 프로그램 80% 이상과 5200건의 계약이 파기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려 국무부의 6주만에 걸친 검토 끝에 USAID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취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끼치는" 계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프로그램(약 1000개)이 이제 국무부 산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역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DOGE)에 감사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모든 외국 원조 지급을 90일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연방 정부 축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측근인 머스크에게 USAID 해체를 지시했다.

USAID의 자금을 받아 해외 원조를 해온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동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은 이날까지 자금 지급을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中 양회 종료... 내수부양·첨단기술로 악재 돌파 전망

"대내외 악재가 많지만 내수 부양과 첨단기술 산업 육성으로 5%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담긴 메시지다.

근거는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과 국가 주도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이다. 3000억 위안(약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의 신제품 교체 지원)에 투입하고 중앙정부 예산 7350억 위안(147조원)을 들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으로 주목받은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 위안(80조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선포한 'AI 플러스'(AI와 다른 산업의 접목) 전략은 올해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체화 지능'(물리적 실체를 갖고 실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AI)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V.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1.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들

칼빈의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질서는 두 부분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의를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결코 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서를 제시함으로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세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사랑해야만 하는 탁월한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는 첫째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훈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선한 행위의 기초가 어디 있겠는가?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보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치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1:14-16)라고 권면하고 있다. 여기에 주님은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신다. 우리들도 길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헤매어있는 양처럼 미궁과 같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자신과 연합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띠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물론 우리 자신의 거룩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거룩은 그 성질상 죄악과 부정함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야 마땅하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소명의 목표이며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이 거룩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평생 동안 더러운 오물 구덩이에서 뒹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하여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시 116:19; 122:2-9).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성별된 성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속된 거주민들로 인하여 더럽히거나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흠없이 행하며 정직한 삶을 영위하는 자만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2)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행위 때문이다

(1) 성경은 철학자들의 교훈과 비교할 수 없는 교훈을 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셨으며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이며 의지해야 할 후원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후 5:1). 이제까지 철학자들이 윤리적인 교훈을 바르고 적절하게 다루어 왔는가? 그 철학자들이 이런 거룩과 하나님의 구속행위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가? 철학자들은 모든 힘을 다해 우리에게 덕을 가르칠 때, 그들이 말하려는 요점은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훌륭한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훈계를 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그 삶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연관시킬 것을 명령한다. 또한 우리가 피조물의 참된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음을 경고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에게 화목시킴으로써 순결한 삶의 본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2) 우리가 주의 삶을 본받지 않는 것은 매우 불경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이것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만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 구주를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과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들에 근거하여 성경은 우리를 훈계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부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답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친 불만을 표현하는 것임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대표적인 제사장들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가 하느도다"(말 1:6).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엡 5:1).

(3) 우리는 거룩을 지향해야 할 책임으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하여 이 정결함을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다시 오물 속에서 뒹군다면 그것은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히 10:10), 주님은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엡 5:26).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전 6:11)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과 연합시키시고 정결하셨다면 그의 지체인 우리가 마땅히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엡 5:22-33; 요 15:3-6). 이에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는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전 6:15)고 도전한다. 우리의 머리인 그분이 하늘로 올리워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애착을 떨쳐 버리고 전심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갈망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골 3:1-3)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

(4) 이것이 성경께서 우리를 성별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의해야 하며, 우리는 자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전 3:16; 6:19).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고 하셨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불멸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섞이지 않는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벧전 5:14),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 없이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살전 5:23; 빌 1:10).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선하고도 적절한 토대가 있다. 이와 같은 토대는 인간의 자연적인 존엄성만을 보여주는 철학자들에게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LOVE 사모

미전역에 있는 목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사모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되는 이 모임은 45세부터 60세에 이르는 담임 목사 아내를 대상으로 한다. 담임 목사의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등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고 남편의 부름을 따라 무작정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목회자 아내들을 위로하며 회복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준비하게 되었다.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치료학회가 726명의 목회자 아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9.9%가 우울 증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스트레스로는 "사역의 부담(22%), 경제적 상황(21%), 교인과의 관계(20%), 고충 나눌 대상 없음(19%)"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알게 된 어떤 사모는 성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지금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외향적인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며 자유가 없는 이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했다. 좋은 사모가 되려고 애쓰다 보니 부족한 자신의 모습만 더욱 부각되고 어려운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할 대상이 없어서 속으로만 삼키다 보니 의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사모 컨퍼런스를 열어서 줄 것을 제안했다.

목회자 아내들은 성도들의 기대치가 주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남편의 요구에 반응하며 교회의 기대치에 자신을 맞추며 살다 보니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것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여느 성도들처럼 교회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기가 수월하지 않아 정서적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 위험이 크다. 이렇듯 목회자 아내들은 늘 성도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다 보니 이것은 사역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되어 해소되지 못한 정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많다.

글쓴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목회자 아내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달걀목회자 아내가 되어버렸다. '자매님'이라고 불리다가 갑자기 '사모님'이라고 불릴 때의 그 생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온몸에 달살이 돋는 느낌이었다. 꽃내기 시절에는 사모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 정립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교회로 건강하게 삼키고 있는 목회자 아내들을 만날 때면 항상 "사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며 질문하곤 했다. 그렇게 얻은 답을 통해 사모의 정체성을 정립해 갔다. 그렇게 시작한 이민 교회 목회자 아내로서의 삶이 이제는 삼십여 년이 되어간다. 꽃내던 목회자 아내가 다양한 사건들과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달고 쓴 모든 훈련의 시간을 견디며 오늘에 이르고 보니 이제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영과 육, 정서적 건강함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목사의 강건함은 그 아내가 건강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모를 살리는 일은 목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확장하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엘매교회)

십시일반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한 손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채우려면 자신의 것에서 반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 사람은 자신의 것에서 20퍼센트를 나누어야 합니다. 백 명이면 자신의 1퍼센트만 희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서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누서 일을 하게 되면 힘든 일도 행복하게 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 '파레토 법칙'이라

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도가 자신의 정원에서 키운 완두 식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완두 식물 중에 어떤 것은 건강한 완두콩을 맺고, 어떤 것은 허약한 완두콩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완두콩의 80%는 완두 식물의 20%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두 식물의 20%에서 80%의 건강한 완두콩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파레도는 이탈리아의 경제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땅 80%가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었습니다. 게임도 관찰해 보니 일하는 개미는 20%였습니다. 회사의 20% 영업사원이 전체 영업 매출의 80%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식을 보면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87%를 소유하고 있

습니다.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몇 퍼센트의 옷을 자주 입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사다 놓고, 한 두 번 입고 난 후 방치되어 있는 옷들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셀폰에 받아놓은 앱들을 보면 거의 80%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20%의 성도님들이 교회 일의 80%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같이 함께 교회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느헤미아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느헤미아는 재력이 있는 몇 사람들에게만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누가 얼마나 담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한 두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여 52일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을 모두가 함께 집을 나누어질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방관자 80%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삶이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함께 서로 돌보며,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gmail.com

보나뮤직 위너스 콘서트 성황



보나뮤직 위너스 콘서트에서 영엔젤스 콰이어가 공연하고 있다

보나뮤직(대표 이혜자)이 주최한 위너스 콘서트가 8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

렸다. 소프라노 김종숙의 사회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지난 11월23일 파사데나 드림교회에서 열렸던 어린이동요대회 수상자들과 수상팀을 비롯하여 14명의 독창자와 2팀의 중창팀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동요를 선사했다. 이혜자 대표는 "오늘 마련한 음악회에 온 가족이 소리 높여 부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요의 진정성과 뿌리교육의 일환으로 이어져 동심의 노래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청중들과 함께 싱얼롱을 한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라스베가스커뮤니티교회 제2회 제자부흥회 설교하고 있는 김영하 목사

라스베가스커뮤니티교회 제2회 제자부흥회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며 은혜의 삶이다"

라스베가스커뮤니티교회(담임 이정환 목사)는 제2회 제자부흥회를 지난 2월28일(금)부터 3월 2일(주일)까지 김영하 목사(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총회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이정환 목사 사회로 열린 마지막 날 부흥회는 신운동 집사가 기도했다. 김영하 목사는 '머물지 마세요(창 33:16-

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영하 목사는 "제자의 삶을 살다보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전도를 멈추거나 봉사를 중단하면 계속 멈춘 상태와 중단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

신앙생활은 쉽다. 쉽다는 것은 죄와 같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가 필요하다.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 멍든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이다. 야곱은 빈손으로 하란을 도망치듯 떠나 벨엘에서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다. 하지만 그가 부를 얻고 라반과 애서와의 문제를 해결 받은 뒤에는 벨엘로 돌아가기보다는 세겜에 머물렀다. 하지만 결국 그는 벨엘로 돌아가게 되었다. 제자의 삶은 쉽지 않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쉽지 않기에 좋은 것이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바란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고 은혜의 삶이다"라 말했다. 설교에 이어 결단의 찬양을 부른 뒤 김영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G2G 선교회 '감사 나눔 축복으로의 초대' 세미나

"감사는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항목"

G2G 선교회(대표 이훈구 목사)는 "감사 나눔 축복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미국 텍사스 남부 맥알렌 한인교회(담임 권영배 목사)에서 3월2일 오후 1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인 G2G 선교회 대표 이훈구 장로는 준비한 파워 포인트 자료를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영 어권을 위해서는 자료 전체를

영문으로 준비한 자료를 나누었다. 또한 감사 나눔의 축복에 대한 상세 설명과 아울러서 중간에 감사 나눔에 대한 실습과 감사 나눔에 대한 퀴즈도 하며 참가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이훈구 장로는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로 하

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 주어서 자신에게 감사 할 줄 알아야만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타인에게도 그 행복을 전파하게 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살아가면서 많이 웃을 때 우리의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며 몸속의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일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는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므로 감사하는 게 참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감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감사 나눔 축복으로의 초대" 세미나를 요청하면 화상, 또는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g2gmission@hotmail.com으로 하면된다. <기사제공: G2G 선교회>



제53회 지방회 정기총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 성결교 LA지방 제53회 정기총회

지방회방 이대연 목사, 부회장 이병역 목사

미주 성결교 LA지방회 제53회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10일 시온성결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미주총회 총회장 후보와 총무 후보로 김종호 목사(연합선교회)와 김시은 목사(용기

장이교회)를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지방회장에는 이대연 목사(시온성결교회)가 선출됐다. 이날 지방회는 대의원과 발언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예배와 성찬식, 임원

선거, 주요 결의안 논의 등으로 이어졌다. 이대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최은호 장로의 기도, 채기 카오후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되었다. 카오후 목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회부에서는 미주총회 제46회차 총회장 후보로 현 부총회장 김종호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했다. 또 총무 후보로 현 총무인 김시은 목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선거는 모두 투표 없이 선출했다. △지방회장: 이대연 목사(시온교회), △부회장: 이병역 목사(뉴송), 최은호 장로(연합선교), △서기: 이진경 목사(임마누엘선교), △부서기: 이성수 목사(나성), △회계: 조동환 장로(돌로스선교), △부회계: 이민균 장로(나성). <정리: 박준호 기자>

"캘리포니아 무료 학자금 신청하세요"

체류 신분 상관없이 지원 가능... 접수마감 4월 2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가을 대학 지원자들에게 학자금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거주 학자금 위원회(CSAC)는 지난 2월 27일 거주 학자금 지원 신청서(CADAA)의 접수 기간을 오는 4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CSAC 데이터 콘잘레스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CSAC에 따르면 주정부 부가 지급하는 학자금에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주정부 지원 학자금은 캘그랜트 외에 장학금, 근로 장학금(워크스터디), 또는 학비 용자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이를 학비와 교재비, 교통 및 숙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캘그랜트 A와 B는 2024-25 학년도 기준으로 UC 지원자의 경우 연간 최대 1만 4,436

달러, 캘스테이트는 6,084 달러, 사립대일 경우 9,358 달러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칼리지나 직업훈련학교 재학생의 경우 캘그랜트 B와 C를 통해 학비로 연간 최대 1648달러, 교재비 등으로 547~1094 달러를 제공한다. UC는 지난 2022년 가을학기부터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등록 당시의 학부 등록금을 최대 6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개인 정보는 보호된다고 입을 모았다. 카탈리나 시푸엔테 CSAC 위원장은 "가주 학자금 신청서를 제

출한 학생들의 정보는 보호받는다"고 강조했다. 단,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의 경우 신청자의 정보를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향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연방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신청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캘스테이트 노스리지에 재학 중인 케일리 사라비아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자금 신청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새 신청자 외에도 재학생들은 서류를 갱신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888)224-7668 CSAC 학생 지원 콜센터, www.csac.ca.gov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에스닉미디어서비스>

중독 상담가 훈련 세미나 제1회 수료식 개최

라이프 챌린지 아카데미(대표 김영일 목사)가 실시하는 중독 상담가 훈련세미나 제1회 수료식이 지난 3월 2일 필렌에 있는 햇빛재단 채플에서 개최되었다. 중독을 치유할 전문 상담가 양성을 위해 라이프 챌린지 아카데미가 처음 실시한 이번 훈련세미나는 총 30시간의 세미나와 실습과정을 수료한 6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현상수업과 줌으로 열린 세미나 수료자들은 중독의 성경적 고찰, 전인적 변화의 원리, 회복을 위한 제자의 단계, 상담 방법론, 실습 등 총 30시간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이들도. 한편 3월중에는 시카고에서 훈련세미나가 열리고 4월에는

한국에서도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이 세미나 수강료는 300 불이며 50%는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문의: (949)864-9162(웹비 권) <정리: 박준호 기자>



라이프 챌린지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중독상담가 훈련세미나 제1회 수료식이 지난 3월 2일 필렌에서 열렸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청소년센터, 할렐루야 청소년 부흥집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3월 28일(금) 오후 7시 뉴욕신광교회(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에서 "Shine Like Star (빌 2:4-16)"라는 주제로 Rev. Charles B. Chung (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을 강사로 초청하여 이민사회 청소년들의 신앙 성장과 영적 회복을 위한 할렐루야 청소년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279-1313

뉴욕주노교회, 김연수 목사 은퇴 및 우영주 담임목사 취임식
뉴욕주노교회는 3월 23일(주일) 오후 5시 본당(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45)에서 김연수 목사 은퇴식 및 우영주 목사의 2대 담임목사 취임식을 개최한다.

▲ 문의: 우영주 목사 516-330-9277

뉴라이프교회, 청빙광고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가 은퇴함에 따라 후임 목사를 청빙한다. 서류 제출 마감 3월 29일이며 지원자격, 제출서류(PDF로 제출), 안내사항 등은 QR 코드로 확인 할 수 있다.



▲ 문의: E-mail: baegnewlife@gmail.com, 841-359-5200

퀸즈한인교회, VBS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나 목사)는 4월 15일(화)부터 18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K-5학년(2024-25년 학교 등록 기준)을 대상으로 VBS(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등록 및 뱀 신청은 www.kcqn.org/vbs 로 하면 된다.

▲ 문의: 이현구 목사 718-925-1329

자마 설립자 김춘근 교수 소천

미국의 부흥과 차세대 지도자 훈련을 위해 수십 년을 한결 같이 달려온 자마설립자 김춘근 교수가 3월 10일(월) 소천했다. 향년 85세. 자마 관계자는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다리며,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의 삶을 기억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자마는 또한 고인의 뜻에 따라 John C. Kim 장학 기금(John C. Kim Scholarship Fund)에 기부를 원하는 자들은 GLDF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Foundation) 앞으로 체크를 써 달라고 알렸다. 김춘근 교수의 장례일정은 △분상(Wake): 3월 16일(주일) 오후 6-8시(중부시간), △전국 환송예배(Memorial Service): 17일(월) 오후 5시(중부시간) 텍사스 린데일 소재 자마 글로벌 캠퍼스(22392 FM 16 W



김춘근 교수

Lindale, TX 75771)이며 장례 일정상 숙소가 필요한 문상객들은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해 R.S.V.P.하여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춘근 교수의 남가주지역 전국환송예배(Celebration of Life Service)는 오는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문의는 (903)804-4016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JAMA)



세미나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월드미션대학,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로 진행

월드미션대학교는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이란 주제로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3월 10일(월)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열었다.

임성진 총장은 이번 세미나 장소를 허락해준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와 감사하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도한 후 첫 강의를 시작했다. 첫 강의는 "목회와 설교"를 주제로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가 이민목회 35년과 은퇴 후 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했다. 김영길 목사는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1)설교 2)성도와의 관계 3)재정 등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목회를 흥내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된다. 그중에 목사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짐은 설교라고 전하며 쉬운설교, 제목설교/본문설교, 귀납적/연역적 설교 방법들에 대하여 강의했다.

두 번째 강의는 남종성 교수가 "목회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실천신학 Ph.D 과정 중 영성에 집중하는 '영성과 상담', '영성과 코칭', '목회와 선교' 전공을 두고 있다.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한 남종성 교수는 "영성진단 툴(tool)이 완성단계에 있다"며, "영성학교를 통해 영성코치 자격증을 주고 자료를 공급하며 현장 목사들과도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바울의 영성을 통한 목회 영성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어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한

최윤정 교수는 "목회와 가정" 주제의 강의에서 특히 펜데믹 이후 교회도 감소되고 자녀세대들의 예배참여가 줄어들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학교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신앙이 중요하며 신앙전수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장은 부모와 가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강사로 신선목 교수는 "목회와 소그룹" 주제의 강의를 통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소그룹 사역센터를 소개하고 주요 활동과 지도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 사역 훈련의 특징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 강의 "설교의 실제"는 임성진 총장이 맡아 변화하는 사회적 특징과 설교자가 자각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임총장은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설교자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LA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미 전역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뉴욕 지역에는 3, 40명의 졸업생 및 재학생이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번 뉴욕 세미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텍사스를 비롯해, 아리조나, 시애틀 등 대 도시를 순회하며 목회자 세미나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김재상 기자)



설교 후 합심기도하고 있다 (강사: 강동진 목사)

벤엘교회, '삶터와 세계선교' 선교부흥회

"말씀 권능·기도 권능·이적과 표적 권능·내어주는 삶"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강동진 목사(보은예수마을)를 초청, '삶터와 세계선교'라는 주제로 2025 선교부흥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선교부흥회는 △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시편 104:30) △ 밀과 썩은 선교 (시편 67:7) △ 품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2) △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라 5:1-11)라는 말씀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지일훈 장로의 기도, 코람데오 중창단의 찬양, 백신종 목사의 성경봉독 후 강동진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백신종 목사는 강사 목사를 소개하며, "강동진 목사님은 매년 10개국 이상을 순회하며, 다양한 사역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철주야로 섬기고 계신 분"이라고 전했다. 강동진 목사는 '세상을 새롭게

게 하시는 성령님 (시편 104:30)'이란 제목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회복이다. 성령께서 사람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생명의 권능이 임하고, 그 후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벤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의 권능과 이적과 표적의 권능, 기도의 권능을 갖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삶을 보여주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회개와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합심기도를 한 후, 백신종 목사의 축도로 집회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홍민기 목사 설교 후 찬양과 합심기도 인도하고 있다

퀸즈한인교회, '하나님 중심' 봄 부흥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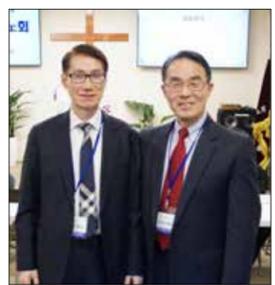
홍민기 목사 초청, 하나님 중심의 삶 결단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나 목사)는 3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를 강사로 초청하여 '하나님 중심'이라는 주제로 봄 부흥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흥회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부흥회는 총 다섯 차례의 집회로 진행되었으며, 각 예배는 △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 △ 좌우를 살펴 (출애굽기 2:11-14) △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요나 4:11) △ 나의 뿔나무 (누가복음 19:1-11) △ GET UP (사도행전 3:1-10)라는 말씀 주제로 열렸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홍민기 목사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며, "자기중심적인 태도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앙이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으로,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되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신앙의 본질을 잊고, 헌신과 봉사 속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며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말씀 후에는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뉴욕신일교회 박맹준 목사, 뉴욕새교회 이명삼 선교사

KAPC, 뉴욕동노회, 남노회, 서노회, 필라델피아 노회 신임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 뉴욕남노회, 뉴욕서노회, 필라델피아 노회는 지난 4일, 11일에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신임원을 선출했다.

△ 뉴욕동노회: 노회장 이상만 목사(베이직교회), 부노회장 장기수 목사(뉴저지임마누엘교회), 서기 문신언 목사(뉴욕십자가교회), 부서기 이문범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회록서기 차석희 목사(뉴욕성심장로교회), 부회록서기 최성현 목사(주사랑장로교회), 회계 강성준 장로(은누리장로교회), 부회계 김세중 목사(복음으로사는교회).

△ 뉴욕남노회: 노회장 조성희 목사(후리산장로교회), 부노회장 조덕남 목사(뉴저지새교회), 서기 조영찬 목사, 부서기 심언 목사, 회록서기 이정환 목사, 회계 박요한 장로, 부회계 신준호 장로.

△ 뉴욕서노회: 노회장 성호영 목사(하나님이기뻐하시노교회), 부노회장 고훈천 목사(천광장로교회), 서기 신두현 목사(뉴욕천성장로교회), 부서기 지민철 목사(주님의교회), 회록서기 오영상 목사(뉴욕세빛교회), 부회록서기 정상철 목사(뉴욕만나교회).

뉴욕신일교회(해외한인장로회)와 뉴욕새교회(RCA교단) 합병

4월 첫째 주부터 '새신교회'

뉴욕신일교회(해외한인장로회)와 뉴욕새교회(RCA)가 교회 합병을 결정하고, 지난 2월 16일 연합예배를 드린 후, 4월 첫째 주부터 '새신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박맹준 목사는 합병에 따른 뉴욕신일교회(해외한인장로회) 폐쇄 및 담임 목사직 사임을 발표하며, 28년간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합병이 이민자 급감 등 불가항력적인 환경으로 인한 위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지혜와 기도를 요청했다. 뉴욕새교회는 그동안 이명삼 선교사가 설교목사를 맡아왔다. (기사제공: 뉴욕새교회)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3.1절 기도회
 3(월) 저녁 안산 큰기쁨교회(김승희 목사) 010-3874-5880 연락 김용희 목사
 4(화) 오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주희 : 지선협 3·1절기념 구국기도회
 5(수) 오후 국제신학 수원분교(송정호 목사) 010-8280-6410 CTS TV 부흥협의회 영성기도성회
 7(금) 오전 아산 수원교회(송정호 목사) 010-8280-6410 CTS TV 부흥협의회 영성기도성회
 8(토) Blessing Event
 9(주) 오후 Good TV Hold a meeting
 10(월) 저녁 (사)한국복음주의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훈 목사, 여성총재 임은선 목사, 대표회장 김대근 목사, 여성대표회장 이항원 목사) 청주지역 연합총회부흥성회
 총주 미사복귀기도회(사순년 목사, 문동철 목사) 010-7136-7669
 전국원로장로회 3.1절 기도대회(류성교 장로) 010-5265-1501
 김포 은빛교회(정성업 목사) 010-4067-1091
 11(화) 오전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13(목) 오전 서울현영대학교 주희 : (재)이재민(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한영훈 목사) 010-2009-7272
 17(월)~21(금) Visiting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in Asia Region
 24(월) 저녁 안산 대부도 열림수영관(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전국목회자영성수련회
 25(화) 오후 국회대로 (사)UN재단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사장 최명숙) 010-4025-0691
 27(목) 오전 C해널TV 목회자협의회, 연락 김용희 목사
 27(목) 오전 안산 열림수영관 주희 : 신명선교협의회(대표회장 최은수 목사) 010-7684-0135
 27(목) 오후 7,000기도를림(이사장 권태일 목사,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본부 Building Conference Event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중섭) 2025년 정기총회 및 축하공연행사
 28(금) 오후

제245차 해외성회 (245th Overseas Assembly)
 KAL 인천(8:10)-몽골(10:50)
 몽골(Mongolia) Ramada by Wyndham Ulaanbaatar City Center
 Elanbat the Capital of Mongolia
 몽골(Mongolia) 몽골원주민 42교회 연합대부흥성회
 주최 : 기독교인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김영현 목사)
 몽골(Mongolia) 몽골한인선교교회(손명목 목사)
 몽골(13시) - 인천(15:10) / 인천 (18:35) - 일본 도쿄 나리타(21:05)
 2(수) 오전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MT)
 2(수) 오후 일본(JAPAN) 東京 우에노공원 일본인외국인성경 사명(교) 전스대만 선교사, 김태실 선교사
 3(목) 낮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 심령부흥성회 및 제5기 수료식
 4(금) 저녁 일본(JAPAN) 도쿄 나리타(9:20) - 인천 (11:45)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40(남산1동) 4층 409호
 서울신자교회 Tel. 02) 3411-9191
 Fax. 02) 1401-7770

KAPC 가주노회 제 97회 봄 정기노회

신임 노회장 이준우 목사, 부노회장 조성백 목사



제 97회 KAPC 가주노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노회원들

KAPC 가주노회 제 97회 봄 정기노회가 3일-4일까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교회(담임 이준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노회장 이정구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신민철 목사(LA 해본교회)기도, 조인 목사(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성경봉독에 이어 이준우 목사가 '소망을 찾아서'(골로새서 1: 3-6)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성찬예식(성찬위원 권병호 장로/박세웅장로)을 가진 후 박덕근 목사(은혜와 평강교회)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를 통해 각부 보고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임원을 선출했다. 노회장 이준우 목사, 부노회장 조성백 목사, 서기 장용호 목사, 부서기 배현기 목사, 회록서기 조인 목사, 부회록서기 이광희 목사, 회계 한일경 목사, 부회계 조경훈 장로이다.

KAPC 남가주노회 제 76회 정기노회

노회장 안병권 목사, 부 노회장 최태규 목사



KAPC 남가주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KAPC 남가주노회 제 76회 정기노회가 4일(화) 오전 10시 가나 교회(담임 안병권 목사)에서 열렸다. 회무에 앞서 이광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이광형 목사(복음장로교회)기도, 강래성 목사 성경봉독, 안병권 목사 설교, 최태규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안병권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성"(삼하 23:13-17)의 제목으로 "노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고난을 각오한 충성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사소한 일에도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종구 목사 집례로 진행된 성찬식은 강병성, 변정수 장로가 성찬위원으로 섬겼다. 이어 서기의 회원점명과 노회장이 개회를 선언함에 회의를 갖고 각 부 보고가 있는 뒤 신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안병권 목사, 부 노회장 최태규 목사, 서기 한석호 목사, 부서기 박준식 목사, 회록서기 안광진 목사, 부회록서기 송호준 목사, 회계 이광형 목사이다.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 44회 정기노회

노회장 송일용 목사, 부노회장 백현 목사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 44회 노회에서 선출된 신임원들. 우측 첫번째 노회장 송일용 목사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 44회 정기노회를 11일(화) 오전 10시 남가주든단교회(담임 김홍철 목사)에서 개최하고 노회장으로 송일용 목사를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송일용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최태우 목사가 기도한 뒤 송일용 목사가 '후계자'(왕상 19:19-21)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목사는 "엘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후계자 엘리아에게 주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주를 따를 것인가? 지식도, 가진 힘도, 이름석자도 내려놓고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후계자들에게 주고, 또 주고, 물려주는 우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휘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박대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무처리가 진행 되어 각부 보고 및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과 같이 신임원을 선출했다. 노회장 송일용 목사, 부노회장 백현 목사, 서기 이경휘 목사, 부서기 최태우 목사, 회록서기 김홍철 목사, 부회록서기 최수철 목사, 회계 이웅 목사이다.

KPCA 104회 서노회 개최

은퇴를 앞둔 박성규목사에게 공로목사패 수여



KPCA 104회 서노회에서 박성규 목사가 노영호 노회장으로부터 공로목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박태겸 목사) 서노회(노회장 노영호 목사)는 104회 노회를 8일(토) 오전 9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가졌다. 이날 노회에서는 본 총회 42대 총회장을 지냈으며 20년간 주님세운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고 은퇴를 앞둔 박성규 목사에게 공로 목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화균 페루 선교사의 선교비 후원 중단이 보고되었다. 박 선교사의 선교비 후원중단은 박 선교사가 파송된 곳이 서노회가 아닌 나성영락교회이며 나성영락교회의 서노회 및 총회 탈퇴로 인해 선교비 후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노회에서는 임은주 선교사와 최영태 선교사에게도 추후 선교비 중단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5월 7일과 8일에 열리는 제49회 총회가 서울연동교회에서 열게 되었다는 총회준비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전해졌다. 노영호 목사 인도로 열린 개회예배는 권오성 장로(장로 부노회장) 기도, 조준석 목사 특송, 노영호 목사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렘 2:19-22)라는 제목으로 설교, 박성규 목사 집례로 성찬식, 박성규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KPCA 서중노회 제 48회 정기노회

노회장 김석훈 목사 부노회장 최용성 목사, 조규완 장로



KPCA 서중노회 제 48회 정기노회에 참석한 노회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KPCA 서중노회 제 48회 정기노회가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소서"(골 2:12-14)의 주제를 걸고 3월10일(월)-11일(화) 홀러톤 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10일 저녁 7시 박형준 목사 사회로 드려진 개회 예배는 김희권 장로 기도, 김정식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김정식 목사(강원동노회 노회장)는 얼마 전 LA를 휩쓴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사61:3)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요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재대신 화관을 근심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위로와 회복의 도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성찬예식은 황인철 목사의 집례로 진행했으며 백정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회무절차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임원개선에 들어가 노회장 김석훈 목사, 부노회장 최용성 목사 조규완 장로, 서기 손재홍 목사, 부서기 황성만 목사, 회록서기 김도혁 목사, 부회록서기 박찬 목사, 회계 정용주 목사, 부회계 국승준 목사를 선출 했다. 둘째 날 오전 9시 아침 경건회는 황성만 목사 사회로 박동진 목사 기도와 송병주 목사의 설교("하나님의 일음" 요 6:28-29), 최상철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회무가 이어졌으며 오후 폐회 예배는 신임 노회장 김석훈 목사의 사회와 설교, 황인철 목사의 축도로 노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노회 취재 이성자, 박준호 기자)

아르모니아싱어즈 첫 정기연주회 막 올려

아르모니아싱어즈(단장 최유진) 첫 정기연주회가 8일(토) 오후 6시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찬송가의 밤'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최유진 단장은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며 "특별히 '찬송가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게 되었는데 공연이 마친 후 관객 분들이 '찬송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연주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했다. 앞으로 좋은 공연을 자주 열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은혜로운 초대, △주님과 동행, △생명의 사랑, △맛이 할 영광으로 등의 주제로 무대

가 꾸며졌으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저 잠미꽃 위에 이슬', '달고 오며한 그 말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예수 사랑하심은' 등 찬송가를 편곡하여 선사했으며 이날 공연장에 찾아온 관객들은 찬송가를 같이 부르며 가사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아르모니아싱어즈 첫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단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감사한인교회 창립 42주년 부흥성회 및 창립기념주일예배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창립 42주년 부흥성회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14일(금)과 15일(토) 개최한다. 이번성회의 강사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이며 부흥성회 일정은 14일(금) 저녁 7시30분, 15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이다. 한편 16일(주일)은 창립42주년 기념주일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4) 521-0991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임직 및 원로목사 추대식
주님세운교회는 신용환 담임목사 임직 및 박성규 원로목사 추대식을 16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310)325-4020

오렌지한인교회 봄 부흥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는 봄 부흥회를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송병일 목사(한인기독교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갖는다. 이번성회의 일정은 14일(금) 저녁 7시 30분, 14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16일(주일) 오전 8시, 9시30분, 11시15분

▲ 문의: (714)871-8320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청빙
나침반교회는 민경엽 담임목사의 정년은퇴(12월 31일)에 따라 새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 자격은 PCA 교단 인정 신학대학원(M.Div, Th.M, Th.D) 졸업, 이민목회 5년 이상(담임목사 2~3년 선호), 영어·한국어 가능, 미국 내 취업 결격 사유가 없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졸업·목사안수 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2부(밀봉), 최근 6개월 내 설교 2편(CD/DVD/영상 링크), 서약서 등이며, 마감은 6월 30일이다. 제출: Attention: James Paik, 2270 Rosecrans Ave, Fullerton, CA 92833

▲ 문의: (714) 853-3266



주일학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행과 상생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일학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행과 상생 포럼

"아무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다음세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동행과 상생(공동대표 한기홍 목사, 권준 목사)이 공동주최한 주일학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행과 상생 포럼이 10일(월) 오전 11시30분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송병주 목사(복음과상생 사무국장/선한정치교회) 사회로 시작된 포럼에서 Lighthouse Mission Church ED 디렉터이자 Head Start ECRES 전문 교육가 김벌리 김 전도사가 '트럼프 2.0 공교육과 교회학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 전도사는 "미국의 연방교육부는 1979년 지미카터 행정부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금지급과 각급학교에 관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인증기관과 프로그램 감독 업무를 해왔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무상 보조금과 같은 학비보조를 시행해왔다"고 설명하고 "한 학생에게 지원이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교육의 질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폐지되더라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은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 폐지로 학자금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무상보조금과 같은 학비보조가 폐지되거나 축소가 될 것이다. 그 대신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에 학자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역커뮤니티와 연대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담임)와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가 교회와 대학생선교단체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호 목사는 "한 인타운은 학군이 좋지 않기에 자녀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따라서 작은 교회의 경우 다음 세대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모든 세대가 서로 배려를 하며 사역을 할 때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오윤태 목사는 "자녀들은 상황적으로 이민자로서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자녀들의 영적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부모세대들을 볼 때 가장 잘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다음세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병주 목사는 동행과 상생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송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이 어려워졌다. 교육부 사역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교회에서 순미스트리 같은 선교단체와 연합하거나 교회내의 학생들을 교육부 디렉터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동행과 상생에서 마련한 12주 교육 디렉터 온라인 과정을 소개 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상훈 목사(미성대학교 총장)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정총, 위기의 이주민 청소년 위한 한국어교육비 지원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정총·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11일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정총에 따르면 권순웅 대표회장 등은 이날 경기도 부천시 서월미구 도당동의 위기청소년 복지시설 어게인(대표 최승주)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외국의 국제결혼이나 재혼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언어 장벽 뿐 아니라 문화적 적응, 정체성 혼란, 교육·취업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과 심

리·정서 지원,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권 대표회장은 “최근 사회적 어려움이 커지며 청소년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현실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돌보는 어게인을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다음세대를 위기라고 하는 이때 위기 청소년들이 자립을 꾸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주민 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오네 시모처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

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주 대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게인에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학습 지원, 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곳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고, 새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지역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멘토 역할에 나서고 종교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역 교회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정총 총무 강동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협동총무 김고현 목사가 기도하고 권 대표회장이 설교했다.



북한 개방 후 '즉시 실행' ...한국컴패션 북한 어린이센터 설립 전략 공유

그동안 가난으로 고통받던 전 세계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 준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이 북한 개방 후 북한 어린이의 전인적 양육 사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013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양육이 가능한 때를 위해 한국교회 187곳과 파트너십을 이루며 준비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컴패션은 11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우리의 발걸음, 예수를 향하여' 주제로 '2025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했다. 행사는 북한 어린이 사역에 동

역하는 파트너 교회가 북한 어린이를 전인적으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북한 어린이 양육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 구호 활동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라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갖고 파트너 교회들과 전인적 양육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송실대 명예교수는 ‘북한 어린이 삶의 양상 분석과 어린이 센터 설립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1

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기반으로 북한 개방 후 어린이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데이터와 전략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8년 UN 요청으로 북한에서 실시된 인구조사 등의 통계 자료를 참고해 북한 지역별 어린이의 후생 수준을 분석했다.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에서는 이동의 변화가 크게 없고 2008년 진행된 종합적 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준비된 교회가 북한 어린이 양육 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의 지역별 가난도를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평양 아동의 후생 수준이 가장 양호하며 황해남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북한 아동이 여전히 빈곤과 아사로 고통받고 있으며 유기와 범죄 등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컴패션의 북한 사역은 2011년 국제컴패션 리더십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북한사역팀 신설로 본격화했다. 2015년 6월 개최한 ‘북한사역 서밋’을 통해 한국교회에 북한 어린이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나눴다. 현재까지 187개 교회가 한국컴패션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어린이센터 전문인력으로 2011명 이상이 사역 훈련을 수료했다.



“예배 때 주차도 잘하면 사역” 양보·분산 캠페인 지역 주민 주차난 가중 해소 위해

본당에서는 이미 찬양이 시작됐는데 주차장에서 혼잡이 새어 나온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지만 주차 봉사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민원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주차 전쟁’은 도심 교회들이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서울 서현교회(이상화 목사)는 최근까지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예배 시작 무렵이면 교회 주변 골목에 차량이 몰리면서 교회로 찾아와 향의하는 주민도 있었다. 새가족이 교육을 받던 중 이동 주차하러 가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등 교인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9일부터 이 교회 주차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 교인이 주차 캠페인에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캠페인 이름은 ‘주·동·행’이다. ‘주일 주차, 동네 주차장에 하고, 행복한 예배 드리기’란 문장에서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이날부터 교인들은 교회와 주차 공간을 나눠 쓰기로 한 도보 2분 거리의 예식장 주차장이나 교인이 운영하는 인근 사업장 주차 공간을 이용한다. 교역자들은 교회와 1km 남짓 떨어진 극동방송 주차장에 주차한 뒤 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차할 수 있는 교회 주차장은 새가족과 노약자, 다자녀가정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둔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김병삼 목사)는 주일에 주차카드가 있는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교통약자 교인에게만 발급한다. 대부분 교인은 교회 인근 관공서나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교회는 셔틀버스를 통해 대채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와 먼 곳에 내리는 교인의 이동을 돕고 있다.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김다위 목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 일반 성도들은 교회가 주일에만 사용하기 위해 빌린 인근 대형상가 주차장을 이용한다. 주차비는 교회가 부담하고 교회와 상가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10여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는 3년 전부터 ‘카 프리 선데이’ 이름의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차 없는 주일’이라는 의미의 캠페인은 ‘차량 4부제’와 ‘2시간 이내 출차’가 핵심이다. 교회는 주일마다 교회 인근 중학교 운동장과 주차장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학교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천지 상가 건물 추가 매입... 건물 용도변경 허가 반대한다” 과천 교계·시민단체 성명 발표

이단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대형 상가건물을 추가 매입해 건축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천지 측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쳤다. 과천시민회(회장 신원수)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성명에서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신천지 교회는 과천에서 떠나야 한다”며 “우리는 생존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시청은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

해야 할 권리가 있다. (신천지 측에) 집회 시설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최근 1600억원을 들여 과천 별양상가3로의 10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그동안 이마트 과천점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의 9층과 10층을 본부와 요한지파 시설로 활용했는데, 최근 추가로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것이다.

과천지킴이시민연대(대표회장 장현승 목사)는 신천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 1만명 정도가 서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신천지 집단의 지역 중심상가 매입 등을 저지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다음 달 20일 부산외대에서 열린다 ‘십자가, 십자가 부활 능력일세’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 달 20일 오후 3시 부산외대(장순홍 총장) 운동장에서 부산 교계 4개 단체가 연합해 개최된다.

부산성서화운동본부(본부장 권중오 목사)와 부산교회희망연합(총재 김문훈 목사),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대표회장 정영진 목사), 부산교회총연합회(부교총·대표회장 엄정길 목사)는 지난 6일 부산 가야교회(박남규 목사)에서 2025년 부활절연합예배 출범식 및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박상철 공동준비위원장은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20일 15시”라며 “준비위원장이 모두 동의하고 협의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운동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준비위원장은 조직에 관해 “작년보다 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세웠고 4개 단체의 대표들

이 결정권을 가지고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준비위원회 10개국 국장 중 8개 국장이 인선됐다”고 말했다.

박 공동준비위원장은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원칙은 예배다. 시위 이슈나 정치 등에 대한 부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는 온전한 예배로 드러하도록 하는 부활 감사 예배”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팀이다. 그는 “40명 정도의 팀원들이 함께하는 데 각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원팀이다. 이득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 번째 원칙은 정직으로 “투명한 운영으로 정직하게 재정을 사용해서 온전하게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십자가, 십자가 부활 능력일세’로 9일 확정했다.



예장통합 전도 콘퍼런스 시대 눈높이에 맞춘 전도 전략

“한국교회는 앞으로 목회 대상이 교회 안의 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소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의미를 일깨워 주는 게 탈종교 시대에 적합한 사역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

장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도와 전통적 전도가 신앙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때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됩니다.”(김효숙 장로회신학대 교수)

“언제부터가 교회학교와 청년부에서 신앙 양육이 멈췄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전생애주기 교육목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복음적 소명을 바르게 알고 삶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신형성 장로회신학대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명걸 목사)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2025 전도 콘퍼런스’ 대토론회에서는 전도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췌GPT와 같은 AI의 발달로 질어지는 인

본주의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조언들이었다.

예장통합 총회는 10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원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콘퍼런스와 함께 한 국교회의 예배와 기도, 복음전파 사역을 회복하고 전도로 부흥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주제로 목회자와 평신도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걸 총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잃고 침체된 분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서로의 전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돼 교회가 목적과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별기고

이상명 박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



우리 안의 배고픈 예수

1955년에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마르셀리노의 기적(Miracle Of Marcelino)」이라는 흑백영화가 있다. 스페인의 한 수도원에서 발생한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화다. 주인공 마르셀리노라는 소년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수도원에 열두 명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데, 마르셀리노는 그들의

손에 의해 길러진다. 고아는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수도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는 장난꾸러기로 성장한다. 어느덧 5년이 흘렀을 즈음에 귀여운 약동으로 자라난 마르셀리노는 누구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된다.

이 수도원에는 출입이 금지된 다락방이 하나 있다. 그런

데 호기심 많은 마르셀리노는 어느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금지된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마르셀리노는 머리에 가지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상을 본다. 예수님은 한없이 배고프고 지친 모습을 하고 있다. 마르셀리노는 그날부터 수도사들 몰래 부엌에서 빵과 포도주를 훔쳐서 예수님에게 가져다준

다. 놀람게도 몹시 배가 고팠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소년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는다.

예수님은 마르셀리노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말씀한다. 마르셀리노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러면 잠을 자야 한다고 마르셀리노를 품에 안고 재운다. 마르셀리노는 예수님의 팔에 안겨 보고 싶은 어머니가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런데 마르셀리노를 미행하던 수사들이 이러한 기적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이 소식은 온 마을로 퍼지게 되어 마을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든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관객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팔을 뻗어 빵을 받아서 먹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소년과 대화하는 초자연적 사건을 보는 데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홀로 버려져 있던

다락방의 배고픈 예수님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경건한 수도사들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던 것이다. 수도사들은 그들의 주님인 예수님이 공급해 준 음식을 감사하며 빵과 포도주를 먹고 사실 뿐이다. 그러나 마르셀리노는 거꾸로 그 음식을 배고픈 예수님에게 가져간다. 누가 진정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가.

어린아이가 배고픈 예수님을 찾아낸다. 어린아이가 그분의 진정한 벗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청결하고 많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만이 배고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명된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도사들이 그의 이름으로 배불리 먹는 동안 굶주린 예수님은 다락방에 무심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섬

기는 수도원에서조차 예수님이 굶주리고 춥고 외로웠음을 비쳐주는 영화의 이 장면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교회의 현실이 아프게 오버랩 된다. 길거리, 시장바닥, 극장, 술집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푸대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수도원에서 그러했다는 이 흑백영화의 설정은 우리에게 통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다락방 한 귀퉁이에 굶주리는 예수님을 방치해 둔 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거룩한 예배와 화려한 행사 가운데 정작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예수님을 잃은 공동체는 회색의 무덤에 다름아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배고프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paideiale@gmail.com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1. 기도에 관한 글을 시작하며

모든 인생은 기도한다. 모든 종교는 어떤 형태로건 기도 행위가 존재한다. 기도는 기도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을 설득하는 종교적 행위다. 원시 부족들은 제물을 바치며 건강, 장수, 승전, 식량 등을 구했다. 어떤 종교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산 사람을 바치기도 했다. 기도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첫 기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자 가인의 기도다. 가인은 창세기 4장 13~14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즉 내가 주의 낫을 밟을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가인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 흥미롭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다. 가인의 기도가 성경에 나타난 첫 기도라는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뻔뻔한 가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기도는 가인조차도 가능하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기도가 있다. 또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개인적인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기도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인정하고, 기독교 역사가 기도를 인정한다. 현대 신학도 기도의 필요를 부인하지 않는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기도

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은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거칠게 단언하면 현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필자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정리하며 그들의 기도를 배우고 닮아 좀 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한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이 글들로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를 설득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설득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기도의 영웅들이 보여주는 기도의 힘은 강력하다. 기도의 영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사역은 기도가 총명한 사역이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의 힘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마

틴 루터는 하루에 두세 시간씩 떼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구두 장이나 제단사가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구두를 만들고 옷을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능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모름지기 기독교인은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루터의 도전처럼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영국 성공회가 자랑하는 랜슬렛 앤드류스는 처체스터, 일리, 윈체스터 등 3개 교구에서 교구장을 역임한 명망 높은 주교였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와 학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하루 다섯 시간 이상을 기도와 묵상에 몰두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는 당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그의 탁월한 사역은 기도의 힘이었고 역사가들은 증언한다.

20세 위대한 부흥사로 성결한 삶을 외쳤던 A. W. 토저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는 날마다 홀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



강태광 목사 (월드케어USA대표)

기를 권했다. 기도는 능력 있는 그의 사역의 원천이었다.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조지 물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의 하나다. 그는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으며 일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보육원의 모든 필요를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받은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교회와 성도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다.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기도로 부흥을 경험했고 기도로 성장과 축복을 경험했다. 기도가 왕성했던 시기는 교회가 왕성했고, 기도가 쇠퇴하면 기독교도 쇠퇴했다.

교회를 살피면서 기도의 영웅들을 살필 계획이다. 그들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그들의 기도 생활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경을 기도라는 관점으로 다시 읽으며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소개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 신학의 재정립과 기도 신앙의 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Kangtg1207@gmail.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바리새인과 세리 (눅 18:9-14) 찬 19장

육신의 관점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세리를 멸시한다. 그는 죄의 중으로 살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 여동 속에 있다.

를 알게 하신 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거룩한 의로 덧입히신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반면, 세리는 비록 부정하게 살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자신의 죄

인임을 깨달아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는 일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듯이, 인간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화 구원의 선물 (눅 18:18-27) 찬 230장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죄에 매여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다. 죄가 총동하면 죄에 끌려 살게 되어 죄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죄

인임을 깨달아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는 일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듯이, 인간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수 예수님의 생명 (눅 18:31-34) 찬 258장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때가 이르렀다. 인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는 감추어진 말씀이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그 실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 진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구원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목 맹인의 눈을 여시다 (눅 18:38-43) 찬 563장

주님은 맹인을 구원하시며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믿음으로 응답했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셨다.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였다. 그는 눈이 열린 후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렸다. 영적으로도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영육 간의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이다.

금 삭개오를 부르심 (눅 19:1-10) 찬 494장

예수님은 구원할 자를 찾아 부르신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자, 삭개오는 기쁨과 자유를 얻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며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겠다고 했다. 이는 욕심과 죄에서 벗어난 증거였다. 삭개오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토 영원한 왕을 섬기는 삶 (눅 19:12-27) 찬 313장

장차 왕이 될 주인은 종들에게 한 므나씩 맡기고 장사하라 한다. 열 므나를 남긴 종은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지만, 그대로 가져온 종은 버림받는다. 이는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자의 결말이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알아야 한다. 주인이 맡긴 인생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하며, 그

삶은 장차 드러난다. 왕을 섬기고 충성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버림받는다. 만물은 왕의 것이며, 우리도 왕의 것이다. 왕을 기쁘게 섬길 때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고, 왕의 통치 아래 믿음으로 살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음악 이야기(72)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십자가

지난 3월 5일 수요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기해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전통은 부활절 전 40일간의 금식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AD 325년 니케아 정경(The Canons of Nicaea in 325 AD)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전통이 부활절을 위해 특별한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비록 성경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확실성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 없이 복음을 논할 수 없기에 우리는 특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특히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가를 장조로 사용하여 환희를 드러내며 역설의 십자가를 표현하며 종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Fanny J. Crosby, 1820-1915)가 가사를 쓰고 윌리엄 돈(William Howard Doane, 1832 - 1915)이 작곡한 찬송가 "십자가로 가까이(Near the Cross)"의 후렴구를 첨가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낭만주의 시대 찬송가의 흔한 은유입니다. 이 땅의 고통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피난처와 위안을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 역설의 축복을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XOfi2hrM9E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 1899-1981) 목사님은 갈 6:1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만,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헛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일은 어떤 것이 참된 메시지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려면 고통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과 헌신을 보이기 이전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원한다면 치욕의 십자가, 그 맛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를 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에이든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1963)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다"에서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속죄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예서는 단 한 시간도 머물고 싶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예서는 '가인의 예배'가 드러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세기 말 3세기 초, 로마의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로마의 한 관료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편지 속에는 디오그네투스라는 황제의 보좌관에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상세히 보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마치 그들은 지나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다 하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고난을 겪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한다. 그들은 가난 속에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한다. 그들은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영광이다. 치욕을 당하면 축복으로 대답하고 모욕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선행의 대가로 그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은 분명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선명하게 그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안타까워하며 쓴 고린도 전서 전반부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려 했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광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비통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또한 그분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바른 십자가의 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찬양으로 잘 표현한 곡 중 하나는 조성은 작곡가가 쓴 "십자가"라는 안them입니다. 그녀는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이 곡을 만들게 됐다'고 이야기 합니다.

iyoon@wmu.edu

전반부 고통과 수난의 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을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단조를 사용하여 특유의 어둡고 호소력이 있는 모습으로 선율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무거운 발걸음은 리듬을 통해 연속해서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십자가 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장조로 변화시켜 짧게 표현하고는 간주에 멜로디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어 다시 고난의 길을 반복하여 단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짧은 간주에 이어 승리, 영광의 십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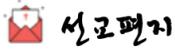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캄보디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 행정과 사역의 확장

지난해 2023년 12월 20일에 보내드렸던 선교 편지 이후, 올해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손님들과 단기팀들이 저희 마을에 오셔서 땀 흘리시며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훈련해 주시며, 마을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사역이 이만큼 커지게 된 것이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뉴라이프 미션 센터: 교회 건축과 기숙사 증축

올해는 뉴라이프 미션 센터에서 교회 건축과 기숙사 증축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며, 기숙사는 방문하시는 손님들과 단기팀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를 위해 헌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NLMA 교회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가 발전하면서 마을의 사역도 NGO, 국제학교, 클리닉, 카페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매달 세금 보고를 하는 등 캄보디아 법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세금 보고, 공문서 작성, 이메일과 카톡 소통 등에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가르치거나 마을 사역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이 더 커지고 사역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 교사와 직원 훈련

저는 교사들을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영어 교재를 가르치고, 임마누엘 센터와 빠르게 크짜이 마을의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센터 직원들과 성경 읽기 모임을 이어가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읽고,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조금씩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가 시작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Business as Mission(BAM)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직업을 창출하고 교회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광학렌즈 공장을 설립하여 청년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여 헌금을 하여 마을 교회들이 자립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학렌즈 회사 사장님이신 장로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 비전을 제안하셨고, 이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발된 청년 두 명이 2025년 1월 2일 한국으로 출국해 3개월간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로 돌아와 캄보디아에 세우는 공장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COVID-19 이후의 성경 읽기 모임

COVID-19이 시작되던 2020년 5월부터 카톡으로 시작된 성경 읽기 모임이 지금까지 매주 한 번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5. 선교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2003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처음 파송되었을 때 함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올해 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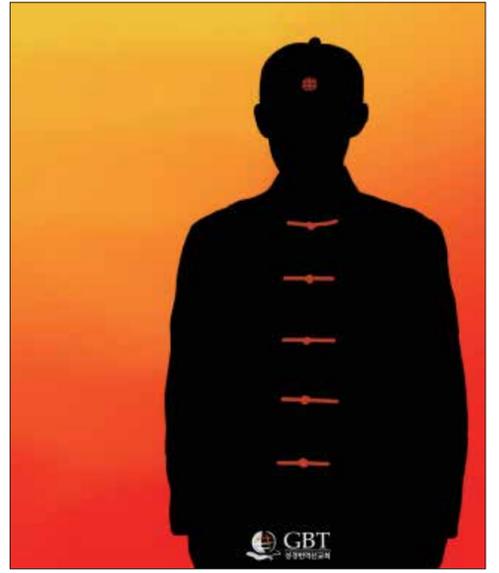
디아를 방문해 주셔서, 21년 만에 재회하며 많이 격려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 고민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마을에 들어올 때 저의 기도는 한 가지, 단 한 사람이라도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길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헌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 1. 앞으로 사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발굴되어 잘 훈련되도록
- 2. 뉴라이프 미션 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3. 교회 건축과 기숙사 제2동 건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 4. 광학렌즈 공장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훈련받는 청년들이 잘 준비되도록
- 5.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영적으로 강건하며, 리더로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에스터 선교사 올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비요 종족

▲ 인구 약 12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80%, 이슬람교 11%, 복음화율 9%

▲ 복음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중국의 56개 소수 종족 중 하나인 비요 종족의 일부로 분류된다. 산속의 비요 종족과 마을의 노인들만 민족성을 유지한다. 대부분 정령숭배자 또는 비종교인이지만 공산화되기 바로 전 덴마크 사역자와 비요 종족 회심자의 전파로 교회가 생겼고 공산당의 핍박을 견뎌내어 대다수 비요 종족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 기도제목

- 1. 비어로 복음을 듣는 것이 시급한 고립된 이들을 위해 번역이 속히 시작되도록
- 2. 비요 종족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들 스스로 비요어 성경에 대한 비전을 품고 동참할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4.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PDF로 제출)

- 1. 이력서(영한, 가족사진 첨부) 및 본인소개서(목회 철학, 비전, 은사등)
- 2.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 3. 목사 안수 증명서
- 4. 6개월 이내 설교 2개 동영상 온라인 링크 2개(일반설교, 선교주제의 설교)
- 5. 추천서 2부(담임 목사나 신학교 교수)

서류 제출 마감 3월 29일 2025

주의 및 안내 사항

-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접수 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 3.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미국개혁교단(RCA) 소속으로, 뉴욕주 Westches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어 5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2025년 12월 은퇴 예정인 제 2대 담임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을 이끌어 주실 제 3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합니다.

A. 자격 요건

- 1. 미국 개혁 교단(RCA) 또는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단에 소속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3.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서 Full-time 목회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분
- 4. 한국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5.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걸려 사유가 없으신 분

B. 제출 서류

- 1. 이력서 (신학 교육, 목회 경력 포함 및 본인·가족 사진 첨부)
- 2. 소개서 (본인 및 가족 소개)
- 3. 신앙고백서 (목회소명 간증문)
- 4.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 5.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M.Div 포함)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6. 설교 영상 (최근 1년 내 설교 동영상 3편, 설교 원고 포함)
 - 주일 설교: 한국어 2편 또는 한국어 1편 & 영어 1편
 - 절기 설교: 한국어 1편
- 7.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로 직접 제출)

C. 유의 사항

- 1. 모든 서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공식 이메일 (church.nydongsan@gmail.com)로만 접수받습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청빙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5. 서류 접수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제3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of Westchester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https://nydongsan.com

church.nydongsan@gmail.com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내 민족, 내 나라, 내 고향”

1975년 9월 15일에 공부를 하겠다고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한 곳은 동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거기서 고향을 생각하면 어찌나 그리 멀게만 느껴지던지, 어찌다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면 언제나 비행기가 도쿄에 도착을 하곤 거기서 더는 못 간다고 내리라는 거였어요. 속상해 하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온 했습니다.
그런던 제가 공부를 끝내고 이곳 시애틀에 있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 목회를 하기 위해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이곳 시애틀로 옮겨온 후로는 비행기타고 가다가 도쿄에서

내리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국이 가까워져서 마음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고 온 조국, 고향을 그리며 노래하곤 합니다.
서산에 해주고 나 실던 집 창문에 호롱불 비칠 때 이 몸을 위하여 기도하는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 창문가에 등불 비칠 때 언제나 꿈꾸게 되나니 내 고향 내 집아 무사하냐 부모님 안녕히 계시냐
그런데 2억 만리 저 바다 건너



너편에서 들려오는 고국, 고향의 소리가 편치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온 국민들이 건강한 오늘의 나라 현실, 내일의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모여 몸부림치며 소리,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 놓고 찾아보면 하나의 점처럼 잡으로 작고도 작게 보이는 나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전력을 다해도 경

쟁에 이기기 힘들게 여겨질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좌우로 나눠져 시도 때도 없이 다툼을 일삼고 있는 모습에 어찌해야 하나, 마음이 저리고 아픕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

건강 길라잡이



이명직 내과전문의

수혈에 대하여

혈액은 산소나 영양분을 심장이나 뇌, 신장 등 각종 장기에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술을 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다량의 혈액을 잃었을 때 빠른시간내에 혈액을 공급

해주어야 하므로 혈액은행(blood bank)에는 항상 충분한 양의 혈액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만 하루에도 수만명이 수혈을 받고있고 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을 공혈자로 부터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혈액을 사고파는 행위는 현재 불법으로 모든 수혈은 자발적인 헌혈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해서 다른 생명을 구하고 싶어하는 데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지 또 수혈을 받는사람은 어떤 기본상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헌혈을 할 때는 약 500cc의 혈액을 뽑는데 심장질환, 특히 심장밸브에 이상이 있거나 심부전, 부정맥이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고 뇌혈관 질환이나 폐기종이 있어도 헌혈을 할 수 없다. 또 지난 6개월간 간질경력이 있거나 최근에 수술을 한 경우에도 헌혈을 할 수 없다.

헌혈에 대한 나이제한은 특별히 없으나 16-17세 이하는 가급적 헌혈을 피하도록 하고 꼭 하고자 할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110파운드(50킬로) 이하는 헌혈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몸무게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헌혈 후에 나타나는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이 더 심하다.
특별한 내과질환이 없어서 헌혈을 할 때는 먼저 혈압을 재고 혈압이나 맥박이 정상이면 손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색소치를 측정하고 충분한 경우에 헌혈을 하게 된다. 헌혈할 때는 헌혈자의 혈액을 스크린을 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말라리아와 같은 각종 기생충 감염 유무 등을

검사하게 된다. 또 광우병과 같은 뇌질환을 유발하는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나 각종 세균감염 유무도 검사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지카바이러스나 에볼라와 같은 드문 질환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헌혈하기전에 특정지역을 여행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혈액을 통해서 암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파가 가능하므로 암치료 후 일 년 동안 재발이 없다면 헌혈이 가능하다. 다만 백혈병이나 임파선암과 같이 혈액암을 앓은 경우에는 헌혈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피부암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헌혈

이 가능하다.특정 여드름약이나 전립선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헌혈을 할 수 없고 1-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수혈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현재 B형 간염은 약 33만 회에 한 번꼴로 감염될 수 있고 C형 간염이나 HIV는 약 2백만명 중 한 명꼴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외에도 특히 다량의 혈액을 수혈받는 경우에는 수혈 중 숨이 차거나 알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발열등의 부작용도 있을수 있다. 수혈시 일어나는 급성 부작용의 대부분은 적절한 내과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문의:213-383-9388

예수! 2세대 회의론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리더

(1면에서 계속)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를 하러 떠나셨다.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때도 종종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신의 이미지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것이었다.

예수님: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복음서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내가 불신하며 성장해 온 세상의 지도자

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과 명성을 좇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이끄셨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셨고(마 23:27-28), 왕의 음모를 “여우”라고 부르셨으며(눅 13:32),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8:36)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부패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 이기심과 타락을 꿰뚫어 보신다(요 2:25). 그러나 그분은 그 혼란

을 외면하거나 이용하는 대신, 겸손과 자비로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2세대의 교회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9점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 이유를 이해한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뢰할 만한 리더십을 따르지 못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섬김보다 권력을, 진실보다 이미지를, 진리보다 쇼를 선택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

면, 문제는 단순히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나는 과시적이고 권력에 집착하는 지도자들을 혐오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내 안에도 그런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어하지만, 때때로 나의 선한 행동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나는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전 세대가 존경을 우상처럼 떠받들었던 것처럼 나 역시 ‘투명성’을 우상화한다. 나는 비어 있는 리더십을 비판하지만,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한다. 우리는 겸손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영향력을 좇는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따른다. 우리는 진정성을 갈망하지만, 결국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다. 동시에, 우리의 회의주의도 지치게 만든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관을 비웃고, 권위를 의심하고,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왔다.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는 냉소하는 것에 지쳤다.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믿고 싶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애즈베리 부흥(Asbury Revival)에 주목했던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레스트 프랭크(Forrest Frank)에게 끌리는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증

명할 필요 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노래한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 대학 스포츠에서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시금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제도에 회의적일지 몰라도, 여전히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진실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세대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준비가 되었는가?”
by Luke Simon, TGC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함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2.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3. 논문제목: 현대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제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권혁천 목사
서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통진 목사